

#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Books Published by Chungcheong-Gamyeong  
Provincial Offices and Cheongju-Mok Regional Office

金 聖 洙 (Kim, Sung-Soo)\*\*

##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忠淸監營 및 淸州牧의 간행본에<br>관한 종합적 분석 |
| 2. 충청감영 忠州의 간행본 | 6. 결 론                           |
| 3. 충청감영 公州의 간행본 | <참고문헌>                           |
| 4. 淸州의 간행본      |                                  |

## < 초 록 >

이 논문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감영이었던 충주와 공주 및 지리적인 요충지이며 거점도시였던 청주목에서 간행된 도서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와 공주의 도서 간행의 가장 큰 특징은, 감영이 위치하였을 당시에만 도서의 간행이 매우 빈번한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감영의 기능 중에서 도서의 간행 업무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청주의 간행본에서는, 간기미상의 도서가 특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刊記未詳의 도서가 71%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간기(刊記)가 명확한 관찬도서의 간행의 거의 없고, 자부(子部)의 도서 등 오직 이 도시에서 지속적인 필요에 의하여 간행된 자료가 많기 때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서 간행은, 감영이 위치하는 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관찬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고, 그밖의 거점도시에서는 도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간기미상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要語: 충청감영,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도서간행, 간행도서

\* 이 연구는 2009.10.17-18.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활동과 역사발전>(주최: 문화재청·충청북도·청주시. 주관: 청주고인쇄박물관·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忠淸監營의 간행 도서”에 대하여 당일의 토론을 거치고, 이에 대폭 수정·보완하여, 연구논문 체제로 완성한 논문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0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22일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books published in Chungju and Gongju where the provincial offices of Chungcheong-do were located, and Cheongju which was the geographical and strategic center of Chungcheong area in the Joseon Perio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ooks were very frequently published in Chungju and Gongju, when provincial offices were located in these cities. It proves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unctions of provincial offices was to publish books.

Second, about 71 percent of books published in Cheongju which was the geographical strategic point of the central area in the Joseon Period lack the dates of publication. It proves that its regional government rarely published books, and many books in the class of 'Miscellaneous Topics' were locally published to meet the continuing need for everyday life in the local area.

The books published in Chungcheong area in the Joseon Period show that those books published in Chungju and Gongju were mostly government publications ord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ost books published in Cheongju were for local demand.

Keywords: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Cheongju, Chungju, Gongju,  
Government Publication, Local Publication

## 1. 서론

‘충청도’는 고대 마한·진한 지역의 땅으로,<sup>1)</sup> 조선시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4목(牧)<sup>2)</sup>인 충주·청주·공주·홍주의 관할 군과 현들을 통괄하여 일컬었던 명칭이다.<sup>3)</sup> 4) 삼국시대에는 이 지역이 삼국의 각축지역이었으며, 흔히들 ‘호서지방’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충청도의 지명은 조선시대에 무려 15차례 이상 그 명칭의 변경이 잦았다.<sup>5)</sup> 충청도의 감영 또한 조선 개국 초기부터 충주에 두었다가, 조선 초기의 한 때에는 청주에 두었는가 하면,<sup>6)</sup> 16세기말인 1598년(선조 31)에 공주로 이전하였다. 또한 청주는 조선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충청도병마절도사가 주둔하였으며, 고려말에 청주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 「直指」를 간행한 금속활자 인쇄도서의 메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충청도의 충주·청주·공주의 3목은 나란히 충청도의 정치·경제·교통(상업)·문화의 요지라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간행도서 및 서적인쇄문화에 관한

- 
- 1) 『增補文獻備考』 卷16, 輿地考4. ‘忠淸道’. “忠淸道本辰(韓)馬韓也.”
  - 2) 일반적으로 牧에는 정3품직인 牧使가 파견됨.
  - 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4권, 忠淸道(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II(서울: 경인문화사, 1978), 420.).
  - 4) 위의 지역을 ‘忠淸道’라고 지칭하게 된 연유는, 고려시대 1106년(예종 1)에 關內道와 中原道(현재의 忠北 지역) 및 河南道(현재의 忠南 지역)을 합쳐서 ‘楊廣忠淸州道’로 명명하면서 ‘충청도’라는 명칭의 개념이 처음으로 대두되었고, 그후 변화를 거쳐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충청도’라 일컬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개국초인 1395년(태조 4)에 충주에 관찰사를 두어 이 道를 관할하게 하였다
  - 5) ① 1404(太祖 4): 忠淸道, ② 1505(燕山君 11): 忠公道, ③ 1550(明宗 5): 淸公道, ④ 1613(光海君 5): 公淸道, ⑤ 1628(仁祖 6): 公洪道, ⑥ 1646(仁祖 24): 洪忠道, ⑦ 1656(孝宗 7): 公洪道, ⑧ 1670(顯宗 11): 忠洪道, ⑨ 1680(肅宗 6): 公洪道, ⑩ 1729(英宗 5): 公淸道, ⑪ 1731(英宗 7): 忠淸道, ⑫ 1777(正祖元年): 洪忠道, ⑬ 1825(純祖 25): 公忠道, ⑭ 1834(純祖 34): 忠淸道, ⑮ 1862(哲宗 13): 公忠道, ⑯ 1896(高宗 33): 忠淸道(충청도의 左·右道를 南·北道로 하였음). 이는 地名을 따온 각 지역에서 綱常罪人이나 背逆者가 생기면, 그 때마다 道의 명칭이 바뀌었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6) 『世宗實錄地理誌』 忠淸道, “改稱 忠淸道觀察使 置司淸州.”
  - 7) 위와 같이 충청도는 三南 가운데서도 그 명칭의 변경이 가장 잦았던 특이한 지역으로,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감영이 소재하는 지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청도의 명칭 변화와 관련된 위 세 지역이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要地로 주목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세 지역에서 간행된 도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 2. 충청감영 忠州의 간행본

忠州는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1395년부터 1598년까지 충청감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으로, <표 1-1>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7종의 도서가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들 표에서 제시된 충주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한 시대별·주제별 간행사항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시대별 간행사항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주에서는 15세기인 1400년대에 經史子集이 골고루 7종 간행되었다. 연이어 16세기에는 집부 별집류의 문집이 4종 간행되어, 15-16세기에 도합 11종이 간행됨으로써, 충주의 전체 간행본 27종 중 무려 40.7%가 이 시기에 간행되는 특징적 현상을 보인다. 이는 조선 전기에 충청감영이 충주에 설치되었던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 4>에서,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한 이후인 17·18세기에는 刊記가 밝혀진 도서의 간행이 全無하다는 특징을 함께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나머지 도서 16종은 모두 그 간행년도가 밝혀지지 않은 刊記未詳의 도서이다. 따라서 충주에 충청감영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충청도의 首府답게 이 지역에서의 도서간행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주제별 간행사항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주에서는 ‘經部 8종, 史部 4종, 子部 6종, 集部 9종’이 각각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四部가 비교적 골고루 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충주감영 간행본의 특별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표 1-1> 충청감영 총주 간행본<sup>8)</sup>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1	1427. 9(世宗 9)	子部 醫家類	鄉藥救急方	朝鮮王朝實錄 <sup>9)</sup>
2	1430. 3(世宗 12)	經部 書類	尙書 30件	朝鮮王朝實錄 <sup>10)</sup>
3	1430. 3(世宗 12)	經部 禮類	禮記 20件	朝鮮王朝實錄 <sup>11)</sup>
4	1466. 7(世祖 12)	史部 政法類	律學辨疑 500件	朝鮮王朝實錄 <sup>12)</sup> 梁誠之 校正
5	1468. 4(世祖 14)	經部 樂經類	樂書	朝鮮王朝實錄 <sup>13)</sup>
6	1488. 3(成宗 19)	子部 儒家類	新刊性理群書 10件	朝鮮王朝實錄 <sup>14)</sup>
7	1582(宣祖 15)	集部 別集類	寓菴先生文集	同書跋 <sup>15)</sup>
8	1583(宣祖 16)	集部 別集類	牧隱文藁	同書跋 <sup>16)</sup>

<표 1-2> 총주 간행본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1	1438(世宗 20)	史部 政法類	新註無冤錄	『韓國醫學史』 <sup>17)</sup> [律令]
2	1584(宣祖 17)	集部 別集類	松齊[詩]集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sup>18)</sup>
3		集部 別集類	西河集	古冊板有處攷 <sup>19)</sup> 各道冊板目錄 <sup>20)</sup> 完營冊板目錄(1759) <sup>21)</sup>

- 8) ‘忠淸監營 또는 忠淸觀察使 등이 간행하였다’고 기록된 각종 문헌 중에서, 시대적으로 忠州監營에서 간행된 도서들의 모음.
- 9) 『朝鮮王朝實錄』世宗 9年 9月 丙申條. “前判羅州牧使黃子厚啓 鄉藥救急方印出分於外方 … 命送于忠淸道刊行.”
- 10) 『朝鮮王朝實錄』世宗 12年 3月 庚申條. “忠淸道監司 引進尙書三十件·禮記二十件.”
- 11) 『朝鮮王朝實錄』世宗 12年 3月 庚申條. “忠淸道監司 引進尙書三十件·禮記二十件.”
- 12) 『朝鮮王朝實錄』世祖 12年 7月 庚午條. “梁誠之校正 分送 … 辨疑于忠淸道 使之刊印 廣布中外.”
- 13) 『朝鮮王朝實錄』世祖 14年 4月 丁巳條. “命分送樂書于 … 忠淸·江原道開刊.”(慶尙·全羅·忠淸·江原道 分送 刊行)
- 14) 『朝鮮王朝實錄』成宗 19年 3月 21日 乙酉條. “忠淸道觀察使 金礪石 進新刊性理群書十件.”
- 15) 同書跋: 萬曆壬午六月 … 忠淸道觀察使 金宇宏 謹跋. 洪彥忠의 文集(寓菴: 洪彥忠(1473(성종 4)~1508(중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缶溪. 자는 直頃, 호는 寓菴. 그의 당대 鄭淳夫·李擇之·朴仲說과 함께 文章四傑 중의 一人으로 알려짐).
- 16) 同書跋: 萬曆十一年癸未七月 日 … 七代孫 … 忠淸道觀察使 李增 謹跋.
- 17) 金斗鐘,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81), 229.
- 18) 서울대학교 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1(서울: 서울대학교도서관, 1978), 493.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4	1552(中宗 17) 推定	集部 別集類	陶淵明集	攷事撮要 <sup>22)</sup>
5		經部 四書類	大學	攷事撮要
6		子部 醫家類	素問 <sup>23)</sup>	攷事撮要
7		史部 政法類	無冤錄	冊板置簿冊(1740) <sup>24)</sup> 完營冊板目錄
8		集部 別集類	疏菴集	冊板置簿冊
9		經部 小學類	三韻通考[韻書]	各道冊板目錄(1750), 完營冊板目錄
10		集部 別集類	慎獨齋集	完營冊板目錄
11		經部 禮類	家禮集覽	完營冊板目錄
12		經部 禮類	喪禮備要	完營冊板目錄
13		經部 禮類	疑禮問解	完營冊板目錄
14		集部 別集類	龜峰集	完營冊板目錄
15		子部 藝術類	春種[書藝]	完營冊板目錄
16		子部 儒家類	孝悌忠信	完營冊板目錄
17		集部 別集類	沙溪集	完營冊板目錄
18		史部 傳記類	杞溪俞氏族譜 [譜系]	完營冊板目錄
19		子部 藝術類	岳飛屏風書 [書畫]	完營冊板目錄

1) 1427년(세종 9)에 의학서인 『鄉藥救急方』을 충청감영에서 간행하여 전국(外方)에 유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당시 국가적으로 긴요한 서적을, 서울(漢陽)과 가장 가까운 지방감영인 충청감영(충주)에서 많이 간행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한 값이 비싼 중국의 약제 대신에,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우리

19) 姜世晃 豹菴時代 寫本, 『古冊板有處攷』 『韓國의 冊板目錄』 下 (서울: 보경문화사, 1995), 763.

20) 『各道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 723.

21) 『完營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 578.

22)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상 (서울: 경인문화사, 1995), 12.

23) 完全書名: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24) 『冊板置簿冊』 『韓國의 冊板目錄』, 411.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향약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백성들의 질병을 손쉽고 긴요하게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던 세종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세종 시대에 『향약구급방』의 충주 감영의 간행을 필두로 하여,<sup>25)</sup> 1433(세종 15)에는 전라도와 강원도 감영에서 『鄉藥集成方』을 나누어 간행(分刊)<sup>26)</sup>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긴요한 의서적들을 지방감영이 대행·분담·주관하여 간행하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하여 볼 수 있다.

2) 1430년(세종 12)에 충청도 감사가 經部의 『尙書』<sup>27)</sup> 20권과 『禮記』<sup>28)</sup> 30권을 인출하여 중앙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같이 충주 감영은 儒學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들을 이곳에서 인쇄하여 중앙으로 올려 보냄으로써, 조선 건국의 이념에 입각한 유학 서적의 간행에 그 一助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1466년(세조 12)에 세조는, 梁誠之가 교정한 政法類의 『律學辨疑』를 충청감영인 충주에 보내어 이를 무려 500권을 인출하게 하고, 아울러 이 책을 전국 경향각지(中外)에 대규모로 널리 유포(廣布)시켰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바로 이 자료의 인출과 유포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충청도에서 담당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1468년(세조 14)에는 經部 樂經類에 속하는 『樂書』를 경상·전라·충청·강원의 4도에 分送하여 간행하게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三南의 세도와 강원도가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특정 도서를 간행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중앙에서 그 底本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인쇄되는 字體 또한

25) 위와 같이 중앙에 進上된 『향약구급방』은 세조 시대에 들어와 “8도에 『(향약)구급방』을 각기 2간씩 下賜하였다”(『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1466, 병술) 6월 13일(임자) 1번째 기사)는 기록으로 보아, 이는 각 감영에서 필요할 때 재간행하는 방안으로 조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6) 『朝鮮王朝實錄』 世宗 15年(1433) 8월 27일 條. “命分刊鄉藥集成方 于全羅江原兩道.”

27) 『尙書』 즉 『書經』은 모두 5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33편을 『今文尙書』라 부르거나 나머지 25편을 『古文尙書』라 칭한다.

28) 『예기』는 儒家의 五經 중의 하나로, 1190년 朱熹는 『예기』에서 『대학』과 『중용』을 별개로 편찬하여 四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학의 기본 경전 중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서적이다.

동일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15세기 중기 각 지방 감영의 목판인쇄 板刻의 수준은 거의 동일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5) 1488년(성종 19)에는, ‘충청도관찰사였던 김여석이 그 在任이 끝나고 체대한 뒤에 와서 이미 인출해 두었던 『新刊性理群書』(子部 儒家類) 10권을 친히 진상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 감영에서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 미리 인출해 두었던 것을 나중에 조정의 임금에게 직접 진상한 사례 중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sup>29)</sup>

6) 1582년과 1583에 각각 간행된 『우암(홍언충)선생문집』과 『목은문고』는 공히 충청도관찰사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관찰사가 주도하여 문집을 간행한 사례에 속한다. ‘조선 前期에는 조정에서 문집 간행을 권장하던 시기였으나, 증가하는 명현의 유고 간행으로 인하여, 이후 지방감영으로 분산되면서 문집의 간행이 성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0)</sup>고 보이며, 이러한 사례는, 관찰사로 부임한 이들이 해당 감영에서 자신의 선조 또는 친인척 및 名家의 청탁을 받아 간행한 경우라 할 수 있다.

7) 1584년에 충주에서 간행된 『松齊集』의 사례를 보면, 이 문집은 송제 李堦(1469-1517)의 詩文集으로, 原集과 拾遺는 송제의 조카였던 退溪 李滉이 편집하고, 그의 외종손 吳滢이 1584년 忠州牧使로 있을 때 간행된 것이다.<sup>31)</sup> 이는, 특정인이 어느 지역의 목사로 부임한 후, 그 관직을 빌어 특정 친인척의 문집을 간행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감영이 위치하는 충주라 하더라도 관찰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목사인 충주목사의 권한과 주도하에 忠州牧의 인적·물적 지원에 의하여 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9) 『朝鮮王朝實錄』 성종 19년(1488 戊申) 3월 21일(乙酉). “충청도 관찰사 金礪石이 新刊性理群書 10件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性理는 도움이 되는 글인데, 刊印하여 올린 것은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그에게 紗 1匹과 鄉表裏 1襲을 내려 주어라’라 하였다. 史臣은 논하다. 在任時에 封進하지 아니하고 遞代한 뒤에 와서 친히 올리는 것은 은사(恩賜)를 요구함이 다. 그 말을 들은 자는 웃었다.”

30) 손계영, “조선시대 監營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 『조선시대 지방 감영의 인쇄활동과 역사발전』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40-49 참고.

31) 서울대학교 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1, 493.

8) <표 1-2>에 보는 바와 같이, 간행년도가 제시되지 않은 목판도서들에 대한 간행을 분석하면,

- ① 「대학」을 비롯한 經部의 도서들은 각 지방의 감영에서 그 지역 주민의 교육과 의례 및 初試 등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간행의 필요성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적들은 海營 및 完營 등의 책판목록에서도 빠짐없이 수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集部 別集類의 문집들은 충청감영의 관찰사 또는 忠州牧에 부임한 牧使들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간행으로 볼 수 있다.
- ③ 그밖에 충주의 간행본으로, 子部 藝術類의 「岳飛屏風書」와 「春種」, 그리고 史部 傳記類의 「기계유씨족보」 등은 다른 지방의 목록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자료도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충주 지방에서만 간행된 도서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 3. 충청감영 公州의 간행본

公州는 조선시대 後期에 해당하는 1598년부터 19世紀末까지 忠淸監營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표 2-1>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이제 이들 표에서 제시된 공주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하여 시대별·주제별 간행 사항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시대별 간행사항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에서는 15세기와 16세기까지 200년 동안 별집류 2종과 史部 政法類 1종을 합쳐서 단 3종 밖에 간행되지 않았음에 그쳤다. 그러다가 충청감영이 옮겨온 1598년 이후 공주에서는 17세기에 經史子集 四부가 골고루 무려 19종이나 간행됨으로써, 공주 간행본 총 57종(중복본 포함)의 도서 중 무려 33.3%가 17세기라는 국한된 백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는 특징적 현상을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에 충청감영이 공주에 이전·설치됨으로써 비로소 이 지역에서 인쇄문화가 급성장

하면서 발전된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 충청감영 공주 간행본<sup>32)</sup>

	刊行年度	主 題	書 名	備 考
9(1)	1603(宣祖 36)	經部 四書類	大學 600件	朝鮮王朝實錄 <sup>33)</sup>
10(2)	1630(仁祖 8)	集部 別集類	孤靑先生遺稿	奎章閣貴重圖書解題 <sup>34)</sup>
11(3)	1638(仁祖 16)	集部 別集類	林唐遺稿	同書跋 <sup>35)</sup>
12(4)	1639(仁祖 17)	子部 農家類 子部 醫家類	救荒撮要·辟瘟方	韓國書誌年表 <sup>36)</sup>
13(5)	1654. 3(孝宗 3)	史部 政法類	忠淸道大同事日 [法制]	韓國書誌年表 <sup>37)</sup>
14(6)	1655. 11(孝宗 6)	子部 農家類	農家集成	朝鮮王朝實錄 <sup>38)</sup>
15(7)	1656. 1(孝宗 7)	子部 儒家類	讀書錄·讀書續錄(完刊)	韓國書誌年表 <sup>39)</sup>
16(8)	1661(顯宗 2)	集部 別集類	西峒集(詩集: 上·下卷)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 <sup>140)</sup>
17(9)	1751(英祖 27)	集部 總集類	溫幸陪從錄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sup>141)</sup>
18(10)	1756(英祖 32)	史部 雜史類	闡義昭鑑 <sup>42)</sup>	韓國古印刷技術史, <sup>43)</sup> 承政院日記

32) 忠淸監營 또는 忠淸觀察使 등이 간행했다고 기록된 각종 문헌 중에서 시대적으로 公州監營에서 간행된 도서들의 중합. 그리하여 이 표에서는, 公州監營은 忠州의 忠淸監營을 계승하였다는 관점에 따라, 그 간행의 일련번호를 9번에서부터 시작함.

33) 『朝鮮王朝實錄』 宣祖 36年 7月 壬寅條. “忠淸道觀察使 封進大學六百件 頒中外大小臣僚.”

34) 『奎章閣貴重圖書解題』, ‘孤靑先生遺稿’ 참조.

35) 同書跋: 壬寅春 曾孫 … 忠淸道觀察使 鄭太和(鄭惟吉의 遺稿).

36)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77(合本鏤板).

37)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81.

38)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11月 癸未條. “公州牧使 申澗 進農家集成 命賜虎皮.”

39)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81(同書刊序, 藏: 藏書閣)

40)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集部1, 413-414. 충청관찰사 吳廷緯가 외조부 柳根의 詩만을 모아 간행한 것.

41) ① 同書卷末墨書: “乾隆十六年 月日 忠淸道監營印送.” ②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史部 I, 123. 영조가 1750년 9월에 온양온천으로 갔을 때 扈從하는 신하들과 唱和한 詩를 엮은 목판본.

42) 『闡義昭鑑』: 조선역사서. 조선 후기 경종·영조 시대에 일어난 討逆의 사실을 모아 전말을 기록한 책. 4권 3책. 활자본. 1721년(경종 1) 신임사화에서 1755년(영조 31) 탕평책에 이르기까지 토역사건을 영종추부사 金在魯, 영의정 李天輔 등이 영조의 명에 따라 1755년에 편찬했다. 중요사건의 발생순서에 따라 월일별로 수록했으며, 사건 전후에 영조가 취한 태도와 언급을 筵教와 『승정원일기』에서 요점을 추려 기록하고, 사건 자체의 기록은 疏啓·筵奏·鞠案에서 초록한 다음에 평론을 기록했다. 권1에는 1721년에 발생한 왕세자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19(11)	1786(正祖 10)	子部 醫家類	疹疫方(國漢文혼합번역)	朝鮮王朝實錄 <sup>44)</sup>
20(12)	1870(高宗 7)	集部 別集類	南明先生文集	同書序 <sup>45)</sup>
21(13)		子部 儒家類	三綱行實	諸道冊板錄 <sup>46)</sup> [忠淸監營公州]
22(14)		經部 小學類	訓義小學	諸道冊板錄 [忠淸監營公州]
23(15)		子部 儒家類	警啟編	諸道冊板錄 [忠淸監營公州]

<표 2-2> 공주 간행본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1	1415(太宗 15)	集部 別集類	樊川文集夾註	同書刊記 <sup>47)</sup>
2-1	1552(明宗 7)	集部 別集類	冲庵先生集	韓國圖書解題 <sup>48)</sup>
2-2	1845(憲宗 11)	集部 別集類	冲庵先生集 重刊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 <sup>49)</sup>
㊦		集部 別集類	冲庵集	攷事撮要 <sup>50)</sup>
3	1604(宣祖 37)	經部 詩類	詩傳	“李朝書院文庫考” <sup>51)</sup>
4	1604(宣祖 37)	經部 四書類	大學	“李朝書院文庫考”
5	1604(宣祖 37)	經部 四書類	中庸	“李朝書院文庫考”
6	1604(宣祖 37)	經部 四書類	論語	“李朝書院文庫考”
7	1604(宣祖 37)	經部 四書類	孟子	“李朝書院文庫考”

聽政에 대한 노론측의 찬성과 소론측의 반대 상소를 수록했으며, 권2에는 1724년 8월 경종의 죽음과 영조 嗣位에 대한 논란을 기록하고, 권3에는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에 대한 개요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권4는 1755년 羅州卦書事件에 관계된 인물에 대한 처벌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

- 43) ①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375. ②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圖書解題』, 523. 英祖 命編. 公州 靈隱寺에서 刊行되었으나 甲辰年에 火燒되어, 湖西觀察營에서 刊行함.
- 44) 『朝鮮王朝實錄』 正祖 10年 5月 29日條.
- 45) 同書序: “上之七年庚午 … 忠淸都事 豐山 柳疇睦 謹序.”
- 46) 『諸道冊板錄』, 『韓國의 冊板目錄』, 482.
- 47) 刊記: 永樂14年 申西 3月 日 公州開刊.
- 48)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圖書解題』(서울: 同研究所, 1971), 542. 冲庵 金淨(1486-1520)의 詩文集. 公州牧使 許伯琦와 金淨의 從姪 金天于가 刊行함.
- 49) 서울대학교 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2, 349. 冊末에 1845년에 쓴 宋啓榦의 跋文이 있음.
- 50)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상, 12.
- 51) 이춘희, “李朝書院文庫考,” 『文敎部研究報告書』(서울: 성균관대학교, 1968), 168.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8	1604(宣祖 37)	經部 禮類	家禮	“李朝書院文庫考”
9-1	1608(宣祖 41)	集部 別集類	習齋集	韓國板本學 <sup>52)</sup>
9-2	1653(孝宗 3)	集部 別集類	習齋集	『奎章閣韓國本圖書 解題』 集部1 <sup>53)</sup>
10	1654(孝宗 4)	集部 別集類	竹窓遺稿	韓國板本學 <sup>54)</sup>
11	1679(肅宗 5)	子部 農家類	農家集成	同書跋 <sup>55)</sup>
⊖		經部 小學類	訓義小學	古冊板有處攷 <sup>56)</sup> 三南所藏冊板 <sup>57)</sup>
12		經部 書類	書傳	攷事撮要 <sup>58)</sup>
13		子部 醫家類	和劑	攷事撮要
14	1546(明宗 1) 推定	史部 政法類	直解大明律	攷事撮要
15		史部 政法類	唐律	攷事撮要
⊖		子部 儒家類	三綱行實	三南所藏冊板 <sup>59)</sup>
⊖		子部 儒家類	警民編	三南所藏冊板, 冊板置簿冊 <sup>60)</sup>
16		集部 別集類	月沙集	冊板置簿冊
17		子部 禮類	喪禮問答	冊板置簿冊
18		史部 傳記類	(文公先生)記譜通編	冊板置簿冊
19		集部 別集類	默庵集	冊板置簿冊
20		史部 雜史類	再造藩邦 <sup>61)</sup> [紀事]	冊板置簿冊

- 52) 前間慕作 著, 安春根 譯, 『韓國板本學』(서울: 범우사, 1974), 178. 權擘의 詩選集. 湖西伯 崔沂과 公州牧使 許筠의 도움으로 간행됨.
- 53) 서울대학교 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集部1, 515. 公州牧使 權擘 刊行.
- 54) 前間慕作 著, 安春根 譯, 『韓國板本學』, 153-154. 姜籀(강주)의 저작(文集)을 그의 아들 姜栢年이 忠淸監司였을 때 板刻한 것. 규장각 소장본은 후손이 改修한 것(乾隆년에 간행된 10권 2책본: 竹窓先生集)과는 별개의 판본임.
- 55) 同書跋: 己未夏 … 公州牧使 申中瀾手謹跋.
- 56) 姜世晃 豹菴時代 寫本, 『古冊板有處攷』 『韓國의 冊板目録』 下 (서울: 경인문화사, 1995), 762-763.
- 57) 『三南所藏冊板』 『韓國의 冊板目録』, 428.
- 58)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録』 상 (서울: 경인문화사, 1995), 12.
- 59) 『三南所藏冊板』 『韓國의 冊板目録』, 428.
- 60) 『冊板置簿冊』 『韓國의 冊板目録』, 408.
- 61) 『再造藩邦(志)』는 선조의 외손인 신경(申聃)이 1577(선조 10)년부터 1607(선조 40)년까지 명나라의 후원을 받은 사실을 적은 책. 1649년에 완성되어, 1693년에 저자의 아들인 申以華가 榮川郡에서 刊行.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21	集部 別集類	晚翠集	册板置簿册,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sup>62)</sup> 完營册板目錄 <sup>63)</sup>
22	集部 別集類	韓景集	册板置簿册
23	集部 別集類	玄谷集	册板置簿册
24	史部 雜史類	史纂集	册板置簿册
25	子部 儒家類	心學圖	册板置簿册
26	集部 別集類	雪峯集	册板置簿册,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27	集部 別集類	李忠靖集	册板置簿册
28	子部 小學類	經史集說 <sup>64)</sup> [訓詁]: 語彙	册板置簿册
29	集部 別集類	檄谷集	册板置簿册
30	集部 別集類	溪隱集	册板置簿册
31	集部 別集類	西岩集(西巖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2	集部 別集類	荷谷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3	集部 別集類	松谷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4	集部 別集類	秋浦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62) 『諸道册板錄』 『韓國의 册板目錄』, 488.

63) 『完營册板目錄』 『韓國의 册板目錄』, 583.

64) 經傳·史書 및 후세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 실려 있는 어휘를 유별로 모아 엮은 사전적인 책. 15권 7책의 목판본. 天道門 地道門 등의 27문으로 나뉘어 실려 있는데, 인용서명은 易·書·詩·史記·漢書 등의 經史와 그의 註疏 및 선현들의 詩·疏·文 등이 망라되어 있음. 序文과 跋文이 수록되지 않아 刊記와 刊行年代 및 편자 미상임. 내용을 보면, 卷1은 天道門 27目 地道門 18目 祥瑞門 4目 災異門 4目 君位門 11目, 卷2는 君道門上 36目, 卷3은 君道門下 29目 亂政門 17目 上 9目, 卷4는 臣道門中 20目 등으로 되어 있음. 經史諸篇의 어휘집으로 이용가치가 많음.

	刊行年度	主 題	書 名	備 考
35		集部 別集類	醒翁集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36		集部 別集類	延平集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37		集部 別集類	玄岩集(玄巖集)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38		子部 小學類	增補韻考[韻書]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 ⊖: 충청감영 공주본과 중복 표시

그러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有刊記 도서의 간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청주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刊記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無刊記 도서 30종이나 되어 그 비율이 무려 52.6%를 점유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공주의 간행도서에 관하여 주제별 간행사황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部 9종, 史部 8종, 子部 13종, 集部 27종'이 각각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集部의 문집류 도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주감영 간행본의 특별한 사황을 살펴보면,

1) 1603년(선조 36)에 충청도관찰사가 『大學』(經部 四書類) 600件을 인출하여 올려 전국(中外)의 大小臣僚들에게 頒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된 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특정도서를 국가적인 대규모로 간행하여 전국에 유포시킨 특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 1639년(인조 17)에 공주감영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적은 책인 『救荒撮要』<sup>65)</sup>와 전염병 예방법 및 치료법을 다룬 책인 『辟瘟方』을 합본

65) 구황촬요: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경제학자인 김육(金瑨: 1580-1658)이 1638년 6월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한 후, 세종 때 편찬한 『구황벽곡방』과 중종 때 편찬한 『구황절요』에서 긴요한 것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1545년(명종 9)에 처음 간행된 것을 김육이 1639년에 다시 찍어 낸 것이다.

하여 간행한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즉, 이 합본 책의 간행자인 김육(金堉: 1580-1658)은 1638년 6월에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함경도 등에 심한 기근(饑饉)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까지 돌아서,<sup>66)</sup> 道伯으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安民策에 부심하던 김육이 기근(救荒)과 전염병(辟瘟)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들 두 책의 합본을 기획하고, 그 이듬해인 1639년(인조 17)에 곧바로 印出한 결과로 『救荒辟瘟方』이 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기근이 닥치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겹친 17세기 당시의 사회상과, 이에 대처하여 그 안민책을 집요하게 강구하면서 곧바로 실천에 옮겼던 牧民官의 노력과 자세 등을 파악하게 하는 특정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1654년(효종 3)에 간행된 『忠淸道大同事目』(史部 政法類[法制])은 목활자본으로, 1623년에 충청도에 실시되었던 大同法이 각 지역의 특성이 감안되지 못한 규정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듬해 혁파되었다가, 1651년 金堉·趙翼 등의 주장에 따라 다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김육은 직접 충청도에서 대동법의 부활을 주관하면서 이 稅制의 施行規則이라 할 수 있는 事目を 손수 만들었던 것을 충청감영에서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 및 의의가 있다.<sup>67)</sup> 특히 이 事目の 간행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중기 당시 국가의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과중한 세금징수에 시달려 流亡하는 농민들을 방지하고 동시에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附課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그 변화 및 그에 따른 시행세칙에 관한 노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특별한 자료중의 하나라

66) 『朝鮮王朝實錄』 인조 16년(1638 戊寅) 4월 2일(乙未) 2번째 기사, 함경도에 큰 기근이 들다. “함경도에 큰 기근이 들었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이끌고 兩西와 嶺東 지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는데, 鏡城이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다가 전염병까지 겹쳐 죽은 사람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上(임금)이 감사와 병사에게 유시를 내려, 각 읍의 사망한 자의 숫자와 수령들이 救荒을 잘하는지의 여부를 널리 조사하여 사실대로 계문해 처치하는데 근거로 삼게 하라고 하였다.”

67) 1654년(효종 5) 金堉이 만든 충청도 대동법의 시행원칙. 1책(40장). 목활자본. 표제: ‘湖西大同事目’. 체제는 앞에 김육이 쓴 ‘湖西大同事目序’가 있고, 이어 충청도대동사목 81조와 호서선해청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湖西大同事目』序 參考).

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충청도대동사목』의 간행의 의의는, 당시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던 시대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도서정보를 관찰사가 직접 선택·간행한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1655년(효종 5)에 간행된 『農家集成』<sup>68)</sup>(子部 農家類)은 세종의 命으로 당시 公州牧使이던 신숙(申澍)이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서적인 『農事直說』과 朱熹의 『勸農文』 및 세조 때 姜希孟이 만든 『衿陽雜錄』 및 『四時纂要』를 집대성한 것이다. 신숙은 이 책을 집대성하여 완성하면서 즉시 인출하여 임금에게 진상한 기록이 보인다.<sup>69)</sup> 이는 監營 지역의 牧使가 농사 관련 서적을 집대성하여 임금에게 진상하고, 이에 임금으로부터 그 부상으로 虎皮를 下賜받은 예이다. 즉, 이 도서의 간행은 民生(農業)의 진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牧使가 관련 자료를 선택·간행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 1755년(영조 31)에 완성된 『闡義昭鑑』(史部 雜史類)은 조선 후기의 討逆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역사서이며, 특히 조선 후기 정치투쟁의 양상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755년 11월 29일에 그 纂集이 완성된 것으로,<sup>70)</sup> 1756년에 왕명으로 芸閣에 명하여, 『친의소감』과 그 언해본 8본을 인출하여, 그 중 7본을 경기도를 제외한 7道の 감영에 내려서 각각 번각하게 한 기록이 있다.<sup>71)</sup> 따라서 충청감영 공주에서 간행·진상된 『친의소감』은,

68) 『農家集成』은 인조 때의 문신인 二知堂 신숙(申澍: 1600-1661)이, 세종의 命으로 편찬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서적인 『農事直說』과 朱熹의 『勸農文』 그리고 세조 때 姜希孟이 만든 『衿陽雜錄』 및 『四時纂要』를 집대성한 책.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풍토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農書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실시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각 도의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그 지방의 경험 많은 농부에게 실험방법을 묻고 기록하여 보고케 하고, 이를 차례로 정리하여 1권으로 만든 것. 『금양잡록』과 『사시찬요』는 四時의 농사와 농작물에 관한 주의사항을 모아서 기록한 것.

69) 『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11月 癸未條. “公州牧使 申澍 進農家集成 命賜虎皮.”

70) 『朝鮮王朝實錄』 英祖 31年(1755 乙亥) 11월 26일(乙未)條. 『친의소감』이 완성되자 찬수 당상·낭천 등에게 상을 내리다. “『闡義昭鑑』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纂修堂上和 郎廳을 불러 보고, 卷首에 친히 쓰기를, ‘성의를 다하여 찬수하여 의를 밝히는 데에 공이 있다[竭誠纂修 功存闡義]’라는 여덟 자를 써서 鐵券에 대신하고, 이어 다섯 곳의 史庫에 각각 1件씩을 소장하고, 板本은 史閣에 간직하라고 명하였으며, 찬수 당상과 낭천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중앙정부(芸閣)에서 각 감영으로 하달되고, 각 감영에서는 다시 이 자료를 번각함으로써, 전국 팔도의 모든 지역(道)에 유포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6) 1786년(정조 10)에 간행된 『疹疫方』(子部 醫家類)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두 관찰사가 각 지역의 의원이 엮은 『진역방』을 동시에 각각 올리게 하여, 이들을 해민서에서 평가한 후에, 채택된 의서를 팔도에 유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경우는 각 감영에서 각각 올린 서책을 중앙에서 受納하고 이를 평가한 후, 그리고 어느 특정 도서를 선정한 후에, 그 채택된 도서를 전국에 유포 시킨 사례에 속한다.

7) <표 2-2>에 보는 바와 같이, 간행년도가 제시되지 않은 공주 지역의 목판도서들에 대한 간행을 분석하면,

- ① 『대학』을 비롯한 經部의 『대학·중용·논어·맹자』 및 『가례』를 비롯하여 『훈의소학·서전』의 도서들과 子部 儒家類의 『삼강행실·경민편』 등은, 각 지방의 감영에서 그 지역 주민의 교육과 의례 및 初試 등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간행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각 간행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적들은 海營 및 完營을 비롯한 三南地方 등의 책판 목록에서도 빠짐없이 흔히 수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98년에 충청 감영이 공주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감영에서 간행되는 경부 자료의 간행에 관해서는 어느 감영의 기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集部 別集類의 문집들은, 여타 지역의 감영과 마찬가지로, 공주 지역에 파견된 관찰사 및 牧使들과 관련되어 간행된 자료들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654년에 간행된 『죽창유고』의 사례를 보면, 강백년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강주(姜籀)의 문집을 판각한 것이다.<sup>72)</sup> 이는, 특정인이 어느 지역의 목사로 부임한 후, 그 관직을 빌어 특정 친인척의 문집을 간행한 사례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71) 『承政院日記』, 英祖 32年 6月 壬子條.

72) 각주 54)의 註文 참조.

#### 4. 淸州牧의 간행본

淸州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三道<sup>73)</sup>의 요충지로 認知되어, 곡식을 운반하기 쉽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삼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淸州는 조선시대에도 ‘淸州牧’으로 존속하였으며, 1449년(세종 31)에 청주는 충청도관찰사로서 判牧事를 겸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주는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이며 세계기록유산 중의 하나인 『直指』가 간행된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청주에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도서들을 살펴보면 <표 3> 및 <표 4>의 일부와 같다.

<표 3> 청주 간행본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1	1439(正統 己未)	集部 總集類	詩人玉屑	同書跋 <sup>74)</sup>
2	1470(成宗 1)	集部 別集類	虞註杜律	同書跋 <sup>75)</sup>
3	1535(中宗 30)	集部 別集類	三灘先生集	同書刊記 <sup>76)</sup> , 攷事撮要 <sup>77)</sup>
4	1553(明宗 8)	集部 別集類	文公朱先生感興詩	同書刊記 <sup>78)</sup>
5	1554(明宗 9)	子部 儒家類	延平先生師弟子答問	同書跋 <sup>79)</sup>

73) 충청도·전라도·경상도.

74) 同書跋: 正統己未 冬十月 嘉善大夫忠淸道觀察黜陟使 兼 … 朝臣尹炯等 … 刊於淸州 …(日本 正中元年(1324)刊本 讎校刊行).

75) 同書跋: 時成化紀元之七年辛卯 … 金紐書, 이 책은 중국 당나라의 詩聖인 杜甫의 七言律詩를 중국 원나라의 학자 虞集이 註를 붙이고 해설을 한 것을 1470년(성종 1)에 당시 청주목사 권지가 청주목에서 간행한 것임. 이 책의 글씨는 괴산군수 박병덕이 썼고, 교정은 이경방이 보았다. 또한 책을 간행한 연월이 발문을 쓴 연월보다 1년 앞서며, 序·跋 및 刊記 등이 완전하다(이세열,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36).

76) 同書刊記: 嘉靖乙未夏 淸州牧開刊.

77)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12, 50, 89, 134.

78) 同書刊記: 嘉靖癸丑冬 淸州牧開刊.

79) 同書跋: 嘉靖33年 … 李滉.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 도서에 관한 분석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6	1555(明宗 10)	經部 禮類	文公家禮儀節	同書跋 <sup>80)</sup>
7	1634, 12(仁祖 12)	集部 別集類	容齋先生集(重刊)	同書刊記 <sup>81)</sup>
8-1	1653(孝宗 4)	集部 總集類	晉山世稿	韓國圖書解題 <sup>82)</sup> 三南所藏冊板 <sup>83)</sup> 完營冊板目錄 <sup>84)</sup>
8-2		集部 總集類	晉山世稿	古冊板有處攷 <sup>85)</sup> 諸道冊板錄 <sup>86)</sup>
9	1658(孝宗 9)	集部 別集類	北渚集	韓國圖書解題 <sup>87)</sup>
10	1778(正祖 2)	史部 傳記類	剡溪李先生門人錄 [系譜]	朝鮮朝活字考 <sup>88)</sup>
11	1832(純祖 6)	史部 傳記類	慶州金氏族譜 [系譜]	同書刊記 <sup>89)</sup>
12		經部 四書類	或問大學	古冊板有處攷, 三南所藏冊板, 完營冊板目錄
13		集部 別集類	擊壤集	攷事撮要 <sup>90)</sup>
14		集部 總集類	古文精粹	攷事撮要
15		子部 醫家類	救急方	攷事撮要
16		集部 書簡類	歐蘇手簡	攷事撮要
17		子部 儒家類	童蒙須知	攷事撮要
18		集部 別集類	梅月堂(集)	攷事撮要
19		子部 儒家類	明心寶鑑	攷事撮要
20		子部 儒家類	性理群書	攷事撮要
21		子部 儒家類	小學大全	攷事撮要
22		經部 小學類	禮部韻 [韻書]	攷事撮要

80) 同書跋: 嘉靖34年 … 乙卯 金忠甲.

81) 同書刊記: 崇禎七年甲戌八月 日 … 双溪寺重刊. … 淸州牧重刊.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圖書解題』, 511.

83) 『三南所藏冊板』, 『韓國의 冊板目錄』, 431.

84) 『完營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 581.

85) 姜世晃 豹菴時代 寫本, 『古冊板有處攷』, 『韓國의 冊板目錄』 下, 763.

86) 『諸道冊板錄』, 『韓國의 冊板目錄』, 485.

8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圖書解題』, 224. 인조 때 영의정이었던 北渚 金瑬(1571-1648)의 詩文集을 1658년에 그의 孫子인 金震標가 淸州牧使로 있을 때 刊行.

88)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107-110. 益齋 李齋賢의 후손인 剡溪 李潛이 淸州의 剡溪에 은둔하여 가르친 제자들의 명단. 대형활자본.

89) 同書刊記: 崇禎四周後壬辰孟夏下澣 淸州 芽山山齋室開刊.

90)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 상, 12, 50, 89, 134.

	刊行年度	主題	書名	備考
23		子部 醫家類	牛馬治療方(新編集成馬醫方, 牛醫方)	攷事撮要
24		集部 別集類	韋蘇州(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	攷事撮要
25		子部 儒家類	進修楷範	攷事撮要
26		子部 醫家類	纂圖脉(纂圖方論脉訣)	攷事撮要
27		經部 詩類	韓詩外傳	攷事撮要
28		經部 孝經類	孝經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29		子部 農家類	農事直說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0		子部 兵家類	兵學指南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1		子部 儒家類	四端七情書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2		集部 別集類	林塘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3		集部 別集類	石峰集	三南所藏册板,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4		子部 藝術類	平正整齊 [雜技術]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5		子部 藝術類	武夷九曲 [音樂]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6		子部 藝術類	忠信篤敬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7		子部 藝術類	黃庭換鵝 [書藝]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8		子部 藝術類	春種 [書藝]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39		子部 儒家類	孝梯忠信	諸道册板錄, 完營册板目錄
40		子部 藝術類	黃孤山草書 [書藝]	完營册板目錄
41		子部 釋迦類	金剛經	完營册板目錄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주에서는 1439년(세종 21) 10월에 집현전 經筵에 소장되어 있던 일본의 刊本(1324刊)인 『詩人玉屑』(集部 總集類)을 校讎하여 청주에서 간행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有刊記圖書 11종, 刊記未詳의 도서 30종, 도합 총 41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청주 간행본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한 시대별에 입각한 주제별 간행 상황에서는,

1) 15세기에 위의 『시인옥설』을 비롯하여 集部의 문집류가 2종 간행되었다. 16세기에는 『文公家禮儀節』(經部 禮類) 1종, 『延平先生師弟子答問』(子部 儒家類) 1종, 集部 別集類에 속하는 『三灘先生集』 등 3종이 간행됨으로써 經子集 도합 5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는 『용재선생집』을 비롯한 집부의 도서 3종만 간행되었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에 청주에서는 『섬계선생문인록』을 비롯한 系譜 관련 史部 傳記類만 각각 1종씩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刊記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는 모두 12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주의 시대별 간행본에서 가장 큰 특징은 刊記未詳의 도서들이 특히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청주 간행본 총 41종 중에서 간기미상의 자료가 무려 29종에 달함으로써 약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여기에는 經部 四書類에 속하는 『흑문대학』을 비롯하여 經部의 도서 3종이 있다. 子部의 도서로는 儒家類 『擊蒙須知』를 비롯한 7종, 兵家類로 『兵學指南』 1종, 農家類로 『農事直說』 1종, 醫家類로 『救急方』을 비롯한 3종, 藝術類로 『武夷九曲』을 비롯한 6종, 釋迦類로 『金剛經』 1종이 각각 간행됨으로써, 子部의 도서는 모두 19종이 印出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끝으로 集部의 도서는 총 7종으로, 이 중 總集類 1종, 別集類로 『石峰集』을 비롯한 5종, 書簡類 『歐蘇手簡』 1종이 각각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淸州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하여 주제별 간행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部의 도서로는 모두 4종이 간행되었다. 이 중 四書類 『或文大學』 1종, 詩類 『韓詩外傳』 1종, 禮類 『文公家禮儀節』 1종, 孝經類 『孝經』 1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간행본 41종 중에서 약 9.7%에 해당한다. 이는 청주

지역 양반 계층의 수요 즉, 官界進出을 위한 과거시험의 참고서적 등의 용도로 자체적으로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史部의 도서는 「경주김씨족보」를 비롯하여 18세기와 19세기에 각 1종씩 도합 2종의 傳記類가 간행됨으로써, 청주간행본 41종 중 약 4.8%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子部의 도서는 모두 20종으로 청주간행본 총 41종 중 48.7%를 차지함으로써, 그 절반 정도가 子部의 도서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儒家類 8종, 兵家類 1종, 農家類 1종, 醫家類 3종, 藝術類 6종, 釋迦類 1종 등으로 비교적 그 주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간행됨으로써, 조선시대 충청도의 지식계급 및 '이 지역 일반 민중(民草)들의 일상적인 살아감'에 관한 궤적들인 사회(유가류)·경제(농가류)·일상생활(의가류)·문화(예술류)·군사(병가류)·종교(석가류) 등이 골고루 반영된 도서들이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간행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곧 淸州가 비록 감영이 위치하는 충청도의 우두머리 도시인 감영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이 충청도에서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적인 거점도시 즉, 界首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童蒙須知」·「明心寶鑑」·「小學大全」·「性理群書」의 자부 유가류를 비롯하여 「孝經」(經部 孝經類)과 「或文大學」(經部 四書類) 및 「文公家禮儀節」(經部 禮類)·「四端七情書」(子部 儒家類)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기반을 이루었던 제반 유학서들이 다양하게 간행되었다는 것은 과거시험 등 이 지역의 양반계층들이 官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기본서적들을 간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청주에서는 서예·음악과 관련한 예술류의 도서가 무려 6종이나 간행된 점 등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초기 충청도의 감영이었던 충주에서는 예술류의 도서가 조선의 전 시대를 통하여 불과 단 2종만 간행되었는가 하면, 조선 후기 충청도의 감영이었던 공주에서 예술류의 도서는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단 1종도 간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청주는 충청도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集部의 도서는 15세기에 2종, 16세기에 3종, 17세기에 3종 간행되었으며  
 년대미상의 도서가 7종 간행됨으로써, 모두 15종 간행되었다. 청주간행본 41종  
 중에서 36.5%를 점유하고 있다.

5. 忠淸監營 및 淸州牧의 간행본에 관한 종합적 분석

이상으로 忠州·公州·淸州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4장까지 도표로 제시한 바를 종합하여, 이들 세 지역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하여 주제별에 의한 지역별·시대별 간행상황을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충청감영 및 청주 간행본의 지역별·주제별·시대별 종합

部	類	청주					충주			공주					계	합계		
		15C	16C	17C	18C	19C	未詳	15C	16C	未詳	15C	16C	17C	18C			19C	未詳
經	四書						1			1			5				7	22
	小學						1			1						1	3	
	詩						1					1					2	
	書							1								1	2	
	禮		1					1	3			1					6	
	孝經						1										1	
	樂經							1									1	
史	雜史													1	2		3	14
	傳記				1	1			1						1		4	
	政法							2	1		1	1			2		7	
子	儒家		1				7	1	1			1			3		14	39
	兵家						1										1	
	農家						1					3					4	
	醫家						3	1	1			1	1		1		8	
	藝術						6			2							8	
	釋迦						1										1	
	禮														1		1	
小學														2		2		

部	類	청주						충주			공주						계	합계
		15C	16C	17C	18C	19C	未詳	15C	16C	未詳	15C	16C	17C	18C	19C	未詳		
集	總集	1		1			1								1		4	50
	別集	1	2	2			5		4	5	1	1	6		2	16	45	
	書簡						1										1	
	계	2	4	3	1	1	30	7	4	16	1	2	19	3	2	30	125	
	합계	41						27			57						125	

첫째, 각 지역별에 의한 시대별 간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忠州에서는 조선시대 全時代에 걸쳐 모두 27종의 도서가 간행되었다. 그 중 충청감영이 所在하였던 15세기와 16세기에 有刊記 도서 11종(40.7%) 전체가 바로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간행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나머지 도서인 16종 전체가 刊記未詳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청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영이 공주로 移轉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명분을 쌓으면서 충주에서 간행할만한 특별한 관찬서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公州에서는 조선시대에 총 57종의 도서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15세기 有刊記 도서는 『번천문집협주』 단 1종이 간행되었고, 16세기 유간기 도서는 『중암선생집』(文集類) 1종과 『직해대명률』(史部 정법류) 1종만이 겨우 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문집류 2종은 당시 공주목사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감영이 공주로 옮겨 오기 이전인 15·16세기 공주 지역에서의 도서 간행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충청감영이 공주로 移轉되어 온 1598년 이후인 17세기에 공주에서는 무려 19종의 유간기 도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고, 18세기에 3종이 추가되면서, 17·18세기에 공주에서 무려 22종이 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주의 총 간행본 57종 중 38.6%를 점유하는 수치이다.<sup>91)</sup> 이것은 공주에 충청감영이 위치함으로써

91) 그밖에 刊記未詳의 別集類의 문집 등이 무려 16종이 간행되는 또 다른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로소 이 지역의 도서간행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아, 감영의 설치와 인쇄도서의 간행과의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

3) 淸州의 간행도서에서 그 시대적인 특징은, 刊記未詳의 도서들이 29종이나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총 41종의 청주 간행본 중에서 무려 70.7%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주가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雄圖로서, 충주와 함께 충청도의 界首官이 되면서 이 지방문화의 두 軸으로서의 중심 도시가 되기는 하였지만, 감영이 고정적으로 자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이 지방의 관찰사가 중앙의 명을 받들어 그 刊記 및 印出의 緣由를 밝히면서 간행하는 官撰圖書의 빈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 그리하여 충청감영에서 간행된 총 125종의 간행본 중 ‘公州의 간행본 57종’·‘淸州의 간행본 41종’·‘忠州의 간행본 27종’이 간행됨으로써, 충청감영에서 간행된 도서는 ‘공주 > 청주 > 충주’의 頻度 순서로 간행된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둘째, <표 4>에 나타나는 주제별에 의한 지역별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部의 간행사항에서는, 청주에서 4종, 충주에서 8종, 공주에서 9종 간행됨으로써 총 21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청감영의 총 125종 중에서 16.8%를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비교적 적은 빈도라고 추정된다. 차후 경상도나 전라도 등의 감영에서 간행된 경부의 간행 빈도와 비교해 본다면 그 원인 등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史部의 간행에 대해서는, 청주에서 2종, 충주에서 4종, 공주에서 8종이 간행됨으로써 총 14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子部나 集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빈도라 할 수 있다.

3) 子部의 간행사항은, 청주에서 20종, 충주에서 6종, 공주에서 13종 간행됨으로써 모두 39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25종의 충청도 도서간행 중 31%를 점유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와 같은 총 39종의 자부 도서 중 50%가 청주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인 청주라는 도시가 충청도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藝術과 醫家 및 儒家的인 측면에서 특히 발전되었음을 파악하게 하는 부분이다.

4) 集部의 간행사항은 청주에서 15종, 충주에서 9종, 공주에서 27종이 간행됨으로써 총 51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四部 중 集部의 간행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공주를 비롯한 청주·충주의 牧民官인 牧使들과 충청감영의 관찰사 등이 連次的으로 교차하면서 각각 그들의 특정 친인척이나 목민관과 관련이 있는 名家 등의 別集類의 문집들을 각각 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 6. 결 론

이상의 본문에서는 충청감영의 간행도서에 대하여, 제1장의 서론에서는 충청도의 명칭 변화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제2-4장에서는 忠州·公州·淸州의 간행본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제5장에서는 이 세 지역의 간행본들을 종합하여 시대별·주제별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제 본문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忠淸監營은 조선시대의 초기(1395-1598)에는 충주에 위치하였고, 후기(1598-19世紀末)에는 공주에 자리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에서 계수관이었던 청주가 차지하는 비중을看過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忠州·公州·淸州 세 지역의 간행도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제2장 ‘충청감영 忠州의 간행본’에서는, 충주에 충청감영이 所在하였던 15세기(7종)와 16세기(4종)에 11종이 간행되고, 그 나머지 刊記未詳의 도서가 16종 간행됨으로써, 모두 27종의 도서가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충주 간행본의 특징은, 비록 그 간행도서의 數는 많지 않지만, 충청감영이 자리하고 있었을 때인 15·16세기에는 충청도의 首府답게 각종 도서의 간행이 활발하였고 판단되며, 그 간행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충청감영 충주에서는 국가적으로 긴요한 서적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간행하고 아울러 이를 전국에 유포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5세기의 경우, 충청감영 충주에서는 1427년에 『鄉藥救急方』을 간행하여 전국에 유포시켰으며, 1466년에는 『律學辨疑』 500권을 인출하여 경향각지(中外)에 대규모로 널리 유포(廣布)시켰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충주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방감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긴요한 서적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도서를 인출하고, 동시에 전국에 유포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2) 충청감영 충주에서는 때론 여타 지역의 감영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서적을 간행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즉, 1468년에 중앙정부에서는 『樂書』를 경상·전라·강원·충청도에 分送하여 간행한 것이 그 사례이다.

3) 지방감영에서 문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충청도관찰사는 지방감영의 인적·물적 지원에 의하여 관찰사의 선조 또는 친인척 및 名家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의 문집을 간행하는 기능 및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우암선생문집(1582)』과 『목은문고(1583)』이 그 사례이다.

4) 그리고 監營地의 牧使가, 관찰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문집을 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송제집(1584)』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셋째, 제3장 ‘충청감영 公州의 간행본’에서는, 공주에 충청감영이 이전해 오기 이전인 15·16세기에는 有刊記 도서의 간행이 단 3종에 그쳐 극히 미미하였으나,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1598)한 이후인 17세기(19종)와 18세기(3종)에 有刊記 도서가 무려 22종이나 간행됨으로써, 공주 간행본 총 57종 중 47.4%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방감영이 이전해 오기 이전과 이후의 해당 도시에 있어서 도서간행의 빈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감영이 공주로 옮겨오에 따라 이 도시가 首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도서의 간행도 동시에 활발해지는 樣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충청감영 공주 간행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충청감영 공주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도서를 간행하는 기능을 수행

하였다. 그 사례로, 『大學』 600件을 1603년에 印出하여 전국(中外)의 大小臣僚들에게 頒賜한 경우 이다. 이는 충청감영 공주에서 특정도서를 대규모로 간행하여 전국에 유포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2) 감영의 도서간행에 관한 권한은 畚的으로 관찰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좌우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1639년에 간행된 『구활촬요·벽은방』의 간행이 바로 그것이다. 1638년 6월에 충청도관찰사로 金堉이 부임을 하였는데, 이 해에 함경도 등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까지 만연하였다. 이에 金堉은 道伯으로 부임하자마자 기근과 전염병을 한꺼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위 두 책의 합본 간행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그 두번째 사례로, 1654년에 간행된 『忠清道大同事目』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大同法의 부활을 주장한 金堉이 직접 충청도의 대동법 시행을 주관하면서 이 사목을 만들었던 것이, 그가 관찰사로 재임하였던 공주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는 주목할 수 있다.

넷째, 제4장 ‘淸州牧의 간행본’에서는 有刊記圖書 12종과 刊記未詳의 도서 29종이 간행됨으로써 도합41종의 도서가 印出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청주 간행본의 특징은,

1) 청주의 간행본에서는 간기미상의 도서가 특히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淸州의 간행도서 41종 중에서 刊記未詳의 도서가 29종(70.7%)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주가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옹도로, 충주와 함께 충청도의 界首官이 되면서 이 지방문화의 兩軸으로서의 중심이 되기는 하였지만, 監營이 고정적으로 자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이 지방의 관찰사가 중앙의 명을 받들어 그 刊記 및 印出의 緣由를 밝히면서 청주에서 간행하는 官撰圖書의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주의 간행본 중에는 子部의 도서가 무려 20종(48.7%)이나 간행됨으로써, 子部의 儒家류 8종을 비롯하여 병가류·농가류·의가류(3종)·예술류(6종)·석가류 등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간행되었으며, 게다가 서예·음악 등과 관련한 藝術類도 무려 6종이나 간행된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현상은 청주가, 監營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제외한, 충청도의 계수관으로서 사회·경제·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제5장 ‘忠淸監營의 간행본에 관한 종합적 분석’에서는 忠州·公州·淸州에서 간행된 도서들을 종합하여, 이들 세 지역에서 간행된 도서들에 대하여 지역별·시대별·주제별로 그 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주와 공주를 비롯한 충청감영에서는 총 125종의 도서가 간행되었으며, 그 중 經部 21종(17%), 史部 14종(11%), 子部 39종(31%), 集部 51종(41%)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부 > 자부 > 경부 > 사부의 순서로 그 간행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조선 전기에 충청감영이 소재하였던 충주의 경우, 15세기에는 經史子集의 四部 도서들이 골고루 활발하게 간행되다가,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1598)한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有刊記 도서의 간행이 全無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공주의 경우, 15·16세기에는 유간기 도서의 간행이 단 3종으로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한 이후 17세기 1백년 동안 공주의 유간기 도서의 간행상황은 경사자집 4부에 걸쳐 무려 19종이나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례를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충청감영 공주가 17세기에 감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방감영 所在有無에 따라 유간기 도서의 간행에 관한 극명한 대조를 보임으로써, ‘감영의 기능 중에서 도서의 간행 업무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을 입증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충청도의 도서 간행은, 감영이 위치하는 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관찬서적의 간행이 활발하였고, 그밖의 청주 등 거점도시에서는 도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간기미상의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原典

- 『大東地志』卷5. 忠清道.  
『世宗實錄地理誌』. 忠清道.  
『新增東國輿地勝覽』第14卷. 忠清道.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4. 忠清道.  
『各道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666-755.  
『攷事撮要』.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1-276.  
『古冊板有處攷』. 『韓國의 冊板目錄』下. 서울: 보경문화사, 1995. 757-816.  
『三南所藏冊板』.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413-454.  
『完營冊板目錄』.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525-626.  
『諸道冊板錄』.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455-524.  
『冊板置簿冊』.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337-411.

### 2. 단행본 및 논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圖書解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김문식·옥영정·이종묵.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9.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민족문화추진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II. 서울: 경인문화사, 1978.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1.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1.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集部2.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3.

- 손계영. “조선시대 監營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 활동과 역사발전』.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37-51.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 李世烈.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9.
- 이춘희. “李朝書院文庫考.” 『文教部研究報告書』. 서울: 성균관대학교, 1968.
- 前間慕作 著. 安春根 譯. 『韓國板本學』. 서울: 범우사, 1974.
- 조정화. “朝鮮後記 관찰사 및 守令의 官職利用 刊本 -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0 No.3(1996). 32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